

웃음으로 털어내는 '삶의 무게'



명랑시장 공연 모습.

〈북구문화센터 제공〉

광주 북구문화센터 특별기획 악극 '명랑시장' 18일 공연

광주 북구문화센터의 특별기획공연 악극 '명랑시장'이 18일 오후 7시 30분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공연에 참여하는 그룹은 경기도 극단으로 김정숙의 작품을 김정 경기도극단 상임연출가가 극단만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공연에서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와의 갈등 속에서 곳곳에 살아가는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현하게 풀어낸다.

치매인 아버지의 빛을 잃지 못하면 끌려가게 될 위기에 처한 현대판 흥녀 유정미와 명랑시장 사람들이 베푸는 온정까지 좌충우돌 스토리를 경기도극단의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무대에 담아냈다.

공연은 10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 1만 원이다. 북구문화센터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들어보아요~ 모차르트의 삶

내일 소프라노 신은선 독창회 '렉처콘서트:작곡가 시리즈' 첫 무대

작곡가들의 삶을 노래하고 설명하는 렉처콘서트 시리즈가 이달 막을 연다.

소프라노 신은선 독창회 '렉처콘서트:작곡가 시리즈' 첫번째 무대가 8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작곡가 시리즈는 일반적인 독창회가 아닌 작곡가를 심도있게 다루며 관객들에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구성됐다.

노래와 설명을 통해 삶이 그려질 첫번째 주인공은 모차르트다.

소프라노 신은선씨는 "사람들의 귀에 익숙하고 유명한 곡이 많은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는 하나의 언어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도전을 해왔다. 이탈리아, 독일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 곡을 만들었으며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작곡가들과 달리 가곡, 오라토리오, 오페라, 콘체르트 오페라 등 다채로운 분야를 시도했다"고 모차르트를 선택한 이유를 말했다.

두번째 시리즈에서는 이탈리아 출신 도니제티와 독일 출신 슈베르트 두명의 작곡가를 주목한다.

이날 무대에서는 '기쁨의 춤동 K.579'와 '환희에게', '무이제가 부정한 연인의 편지를 불태웠을 때', '어렵고 외로운 숲에' 등 8개의 가곡을 선보인다.



소프라노 신은선

이러 '주님을 찬양합니다'와 '누가 내 연인의 괴로움을 알고 있느냐', '피가로의 결혼'의 '어서와 내 사랑스런 기쁨이여'와 '이모네네오'의 '내가 만일 아버지를 잃으면', '훌륭한 젊은이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소프라노 신은선은 광주예술고등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했다.

이후 도니제티 아카데미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료하며 전문 연주자로서의 음악적 견문을 넓혀왔다. 이후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아디나, '라보엠'의 무제타, 오페라 '홍학전'의 춘향역 등 다수의 오페라에서 프리마돈나로 활약했다. 현재는 광주예술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다.

이날 피아노에는 이태리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광주오페라단 음악코치를 맡고 있는 박지현이 함께한다. 사회는 이지은이 맡는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010-9274-3701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요즘 예능 '콘텐츠' 보다 '스타'

온라인 콘텐츠에 화제성 뒤쳐져 '런닝맨'·'불후의 명곡' 등 인기 예능 5% 안팎 시청률에 고전
BTS·패티김 등 앳다튀 섭외 관심 집중 속 효과 낼지 회의적

콘텐츠 흥수 속 좀처럼 화제를 낳지 못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스타를 모시기에 나섰다.

6일 방송가에 따르면 각 방송사는 개별 활동을 시작한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10년 전 은퇴한 패티김, 인기 트로트 가수 송가인·김호중 등 팬덤이 두터운 스타들을 앳다튀 섭외하고 있다.

글로벌 활동으로 국내 예능 출연이 뜸했던 BTS 멤버들은 섭외 1순위 스타다.

가장 먼저 예능 나들이에 나선 멤버는 진이다. 진은 SBS TV 대표 예능 '런닝맨'에 게스트로 출연한다.

본명이 김석진인 진은 이름이 같은 방송인 지식진과 각자 팀을 꾸려 겨루는 '석진대 석진' 레이스로 함께한다. 해당 녹화분은 지난달 30일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 참사로 방송일이 연기돼 이달 6일 시청자들을 만난다.

리더 RM(본명 김남준)은 장항준 영화감독과 함께 tvN 신규 예능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인간잡학사전' (이하 '알쓸인잡') 공동 MC를 맡는다. '알쓸인잡'은 문학·물리학·법의학·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을 다루는 지식 예능으로 올해 안에 방송될 예정이다.

평소 다방면에 남다른 지적 호기심을 보여온 RM의 이미지와 잘 맞는 프로그램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RM은 7년 전 tvN 예능 '뇌섹시대 문제적 남자'에서도 활약한 바 있다.

KBS 2TV 음악 예능 '불후의 명곡'은 10년 전 은퇴한 '전설의 디바' 패티김을 섭외했다.

패티김 측은 방송 출연이 활동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오랜만에 무대에



패티김



송가인

선 패티김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랜 팬들은 들썩이고 있다.

'불후의 명곡'은 출연자가 다양한 장르의 명곡을 재해석해 부르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의 찬가', '가시나무새', '꽃잎이',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패티김이 어떤 노래로 새로운 감동을 자아낼지 기대를 모은다.

패티김이 출연하는 '불후의 명곡'은 이달 26일과 다음 달 3일, 10일 총 3주에 걸쳐 방송된다.

TV조선은 '미스트로'와 '미스터트롯'으로 스타덤에 오른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김호중이 진행하는 새 예능 '복덩이들고(GO)'를 오는 9일 선보인다.

'복덩이들고'는 송가인과 김호중이 '국민 복덩이 남매'로 뭉쳐 팬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국내 오지마일부터 해외까지 달려가 노래로 웃음과 감동, 위안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예능 프로그램들이 '스타 모시기'에 팔을 걷어붙인 까닭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에서 예능 콘텐츠가 쏟아지는 요즘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기 예능도 시청률을 5% 안팎 수준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

방송을 한 지 10년이 넘는 '런닝맨', '불후의 명곡'은 새로운 시청자들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그렇다고 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주기도 어렵다. 애청자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프로그램은 더더욱 설 자리가 없다. 대중을 시청 타깃으로 하는 TV 예능은 특정 시청자층 입맛에 맞게 제작되는 온라인 콘텐츠의 화제성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꺼내든 카드가 '특별 게스트', '특별 MC'다. 스타들의 팬덤 덕에 장수 프로그램은 신규 시청자 유입을, 신규 프로그램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스타들의 출연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거물급 스타들의 출연은 분명 이목을 집중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청자들을 붙잡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게스트가 바뀌면 스타를 따라 유입된 시청자들은 떠나기 마련이고, 팬덤에 기댄 프로그램은 대중들을 두루 사로잡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 섭외는 매주 방송하는 TV 프로그램은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해온 시도지만, 요즘같이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그 힘이 줄어들었다"며 "최근 예능들이 시즌제를 도입해 시즌마다 구성에 변화를 주고, 고정 멤버를 바꾸는 것도 이런 흐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드러난 아동학대 실체...메시지 던졌다

드라마 '블라인드' 시청률 3.1%로 종영...반전·추리로 재미

잔혹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쫓는 tvN 금토드라마 '블라인드'가 3%대 시청률로 종영했다.

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0분 방송한 '블라인드' 마지막 회 시청률은 3.1% (비지상파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마지막 회에서는 20년 전 희망복지원에서 벌어진 가혹한 아동 학대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대중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가해자들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

희망복지원 출신 류성훈(하석진 분)은 마지막

복수 대상이자 자신을 입양한 류일호(최홍일) 판사를 마주했고, 류일호가 자신의 입으로 성 접대를 받고 판결을 뒤집었던 죄를 실토하게 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희망복지원의 또 다른 피해자 정운재(박지민)는 20년 전 자신들을 괴롭혔던 '미친개' 백문강(김법래)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긴 복수의 여정을 끝냈다.

살인 혐의를 받는 류성훈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재판을 통해 20년 전 희망복지원의 실체를 전했다.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했던 우리 사회



에 분노하며 희망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자신의 이익이 누군가의 비극을 눈감아버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서도 묵직한 메시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